지역 소식통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 선정

김제시가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가 주관한 '2022년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천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을 계속 지원받게 된다.

시는 이번 공모에 재능의 단계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및 2021년 만족도와 욕구조사를 반영해 다양한 학습 지원과 개인의 재능 역량 향상을 위한 특화사업을 제안했고, 교육부로부터 2021년 김제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성과를 우수하게 평가받아 재선정됐다.

시는 공모사업에 확보된 국비에 시비를 보태 총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장애 유형별 맞춤형 욕구·만족도 조사를 통해 올바른 스마트폰 활용과 놀이강사 인력양성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김제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추진한다.

/김제=곽노태기자

법무부 사회통합 운영기관 재선정

김제시 가족센터(센터장 장순호)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재지정돼 결혼이민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말과 우리문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매주 토, 일요일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외국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한국정서 이해를 통해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체류기간 자격변경과 귀화 신청 시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국적취득 심사 대기시간 단축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김제시 가족센터에서는 이와는 별개로 결혼이민자 30명을 대상으로 월·수·금 대면교육과 수·목 온라인교육으로 수준별 한국어 교육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

/김제=곽노태기자

작은 원 그리기 · 뱀다리 건너기… 몸 건강 · 마음 건강 '쑥쑥'

전북 1호 어르신 놀이터엔 웃음 한가득

완주 봉동 생강골 공원 '마실' 첫 개소 후 큰 호응

25일 오전 11시 완주군 봉동읍 생강골 공원에는 70~80대 어르신 10여 명이 전북 1호 어르신 전용 놀이터 '마실'에서 흥미롭게 운동을 하고 있다.

인근 아파트에 산다는 80세의 최계순 할머니는 "아픈 어깨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작은 원 그리기' 운동을 하고 있다"며 "그림을 보며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노인들의 아픈 부위에 맞게 각종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79세의 박 모 할아버지도 "균형 감각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운동하고 있다"며 '뱀다리 건너기' 운동에 열중했다.

부지 면적 162㎡의 작은 놀이터에는 어르신들의 종합 순환운동에 도움이 되는 놀이기구 13종이 지그재그식으로 배치돼 있었다.

손가락 운동을 통해 뇌 감각을 자극해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손가락계단'에서부터 팔과 어깨의 유연성을 도와주는 '팔 스트레칭기', 손목 근육을 키워줘 창문 열기나 계단 잡기를 도와주는 '손목강화기' 등 손과 팔에서 가슴과 상체, 복부, 하체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놀이기구는 다른 놀이터에서 전혀 볼 수 없는 기구들이다.

조성비용 1억원을 전액 국비로 충당한 이 놀이터는 100세 시대에 맞춰 힘든 근력운동이 아닌 유연성 위주의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기회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9년 6월에 착수, 지난 24일에 완주군이 공식 개소했다.

어르신 놀이터 이름인 '마실'은 '매일 소풍가듯 집 앞에 가볍게 놀러가자는 뜻'을 담은 것으로, 누구든지 마실 가듯 언제나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어르신 놀이터로 이용되길 바라는 의미로 지어졌다. 일반적인 야외 운동기구는 자신의 몸무게만큼 중력이 가해져 근육과 뼈가 약한 노인의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하지만 '마실'에 있는 어르신 운동기구는 근력운동보다는 소근육, 균형 감각, 유연성을 위한 운동기구로 이루어져 있다.

운동은 안내판에 있는 순서대로 손가락부터 손목, 팔, 관절 운동으로 이어지고 마지막 균형을 잡고 걷기운동을 하면 끝나게 된다. 어르신들이 13종의 기구를 천천히 이용할 경우 1시간가량 걸리며, 쉬고 싶을 때는 사회적협동조합과 협업해 만든 '배려의자'에 몸을 맡기면 된다.

24일 완주군은 봉동읍 생강골 공원 내에 위치한 어르신놀이터 마실 앞에서 고령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개최했다.

완주군은 운영주체인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와 함께 전문 체육강사 1명을 고용해 어르신 플레이 플레너 10명을 양성하고, 앞으로 매주 월·수·금 오전에 상주하며 경로당과 읍면 등과 연계해 어르신들에게 효과적인 운동 방법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어르신 놀이터가 활성화될 경우 체육시설이 있는 읍면까지 확대해 놀이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어르신 놀이터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라며 "고령사회에서 노인들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감소에 도움을 주고 있어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한 지자체들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어르신 놀이터 주변에는 생태하천과 게이트볼을 칠 수 있는 파크골프장, 어린이놀이터,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아이부터 노인까지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공존해 가족 단위 휴식처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주한미군 내 제품 수출 납품 추진

김제시가 KOTRA전북지원단과 함께 코로나19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을 돕기 위해 주한미군 내 관내 제품 수출납품을 추진한다.

이번 납품은 사전조사를 통해 주한미군 내 납품을 원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검역과정이 불요한 공산품을 지난 23일부터 선제납품하였으며, 추후 검역과정이 필요한 농산품 및 식품 등의 납품 역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납품할 주한미군 부대는 평택 개리슨 헙프리스(통칭 평택 미군기지)이다.

선납품할 제품들은 마스크, 샴푸, 바디워시 등이며 이미 국내시장에서의 판매를 통해 소비자들의 인정을 받은 우수제품들이다.

특히 마스크는 남녀노소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대·대·중·소의 크기 구분을 했으며 색상 역시 기존의 화이트·블랙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상을 제작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샴푸 및 바디워시는 신소재인 그래핀 성분을 함유, 화장성분의 피부흡수율을 개선했으며 높은 인체 안정성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자체 주도 하에 주한미군으로의 납품은 이번이 최초이며, 이를 시작으로 납품제품을 더욱더 다양화한다. 또한 2분기 중으로 주한미군기지 농식품분야 물품 검역 및 통관 설명회를 열어 기업들이 주한미군기지라는 막연한 부담감을 떨치고 새로운 시장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도울 계획이다. /김제=곽노태기자

"답은 현장에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 현안 로드체크 나서

박성일 완주군수가 임기 마지막 날까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실천하듯 현장에서 '숨 가쁜 현안 로드체크'에 나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박 군수는 25일 오전 '2022년 현장행정의 날' 첫 번째 일정으로 삼례읍 후정리에 있는 삼례 문화도시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 10시부터 현장방문 일정을 시작한 박 군수는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거점공간 2차 리모델링 현장 설명을 청취하고 곧바로 '마을로 간 문화도시' 주민활동 공유회와 완주문화시민배심원단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주민들을 격려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군수는 40분 만에 공동체 문화도시 현장점검을 마치고 곧바로 인근의 소셜굿즈 혁신파크로 이동,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마을협의회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박 군수는 또 혁신파크 1층에 입주한 중간지원조직과 2층의 입주사무실과 회의실, 3층 언텍트 사무실 등을 둘러봤으며, 오전 11시 10분부터 중간조직과 입주 공동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수렴했다.

10~15분 단위로 쪼개진 빡빡한 현장방문 스케줄은 이날 오후에도 이어졌다.

박 군수는 오후 2시 50분께 이서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과 준공시점 등을 일일이 점검한 후 주민 10여 명과 대화를 나누며 현지 목소리를 귀를 기울였다.

이어 삼례읍 수계리에 있는 삼봉지구 생활SOC 조성 예정지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삼봉도서관과 새마을회관, 공영주차장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현장과 민생을 꼼꼼히 챙겼다.

박 군수는 걸어서 인근에 있는 삼봉지구 도서관 조성 예정지를 찾아 신축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청취한 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으며, 현지 주민들과 소통 시간을 갖는 등 '현장 중심의 현안 로드체크'에 적극 나서 관심을 끌었다.

박 군수의 이날 현안 챙기기는 임기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마지막 날까지 지역발전과 현안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을 낳았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 소상공 사회안전망 구축

시, 화재피해 복구비용 지원… 피해 업체당 최대 1000만원

김제시는 3월부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경영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의 재개를 돕고자 화재피해로 인한 피해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피해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김제시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2021년 12월 15일 이후 화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며 신청일 기준 피해 복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의 복구비와 비품 교체비,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검산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올 초에 화재로 가게가 전소되어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는데, 김제시에서 화재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새 출발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뜻하지 않은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재개를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김제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063-540-3978)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